

종합

# 광주천 상류 댐 건설 논란

## 동구 용연동 586만t 규모 다목적댐 환경단체 등 “생태계 파괴” 반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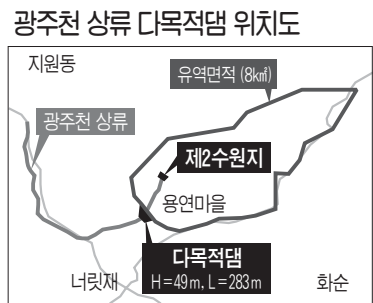
광주시가 광주천 상류인 동구 용연동에 저수용량 586만t 규모의 다목적 댐 건설을 추진해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

광주천 상류 댐 건설은 건전화된 광주천의 수량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04년에도 검토됐으나 효과 미흡, 환경단체 및 전문가 반발 등으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광주시는 댐 건설 대신 691억원을 들여 ‘광주천 자연형 하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중 200억원으로 광주하수처리장~광주천 원

지교까지 관을 설치, 매일 10만t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광주시는 10만t의 물을 흘려보내는 데 매년 9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천 상류인 동구 용연동 일대 소규모 다목적 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건설청 살리기사업)로 1200억원(건설비 700억원, 이주비 500억원)을 특별지원해줄 것을 건넰다.

이 댐은 용연마을 아래 용연천수장 일원에 건설되며 규모는 높이 49m·



길이 283m, 유역면적 8.0km<sup>2</sup> 등이다. 댐이 건설되면 인근 용연마을 62가구 78세대가 이주해야 하며, 1939년 축조돼 현재 광주시 예비수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제2수원지도 수몰된다. 광주시는 이 댐 건설을 통해 매일 3만t의 물을 광주천에 흘려보내면서 수질 개선은 물론 광주천 범람을

막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0만t 넘는 물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3만t씩을 추가로 방류하는 것이 광주천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을 지 불분명하다. 주변 생태계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준희 광주환경운동연합 간사는 “5~6년 전에도 이 방안이 제시됐지만, 그보다는 상류 저수지 확보, 지류 복원 등 장기적으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광주천 자연형 하천사업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6일 개장하는 목포 삼학도 요트 마리나 전경. 50피트급 요트 32척을 댈 수 있고 육상 적치장 등을 갖췄다.

## 목포 요트 마리나 오늘 개장

### 전남 해양·관광산업 중심지 발돋움

### 2020년까지 크루즈 전용 부두 개발

목포 삼학도에 요트 마리나 시설이 본격 운영되고, 오는 2020년까지 여수 및 목포에 크루즈 전용 부두가 개발되는 등 전남 지역이 해양 휴양·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목포시는 16일 오후 삼학도에서 목포 요트 마리나 개장식을 개최한다. 마리나 시설에는 삼학도 목포 내항에 4년간 70억원을 투입해 50피트급 요트 32척이 정박할 수 있는 부유체식 요트 계류장과 클럽 하우스, 요트 인양기, 레조트 교육장, 육상 적치장(25척), 주차장 등을 갖췄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양 크레인이 설치돼 거의 모든 레저용 요트와 보트를 인양해 수리·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도 특징이다. 시는 이곳에 1000억원 이상 투자해 요트 전용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항에 어선 전용부두를 만들어 내항 어선을 모두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요트 전용항이 생긴 데 이어, 크루즈 전용 부두도 개발된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해양 관광·레저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0년까지 목포·여수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개발하기로 했다. 연평균 8% 이상 성장하고 있는 크루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이들 위해 이미 8만급 1선석 규모의 여수항에 크루즈 전용 부두를 마련한 데 이어 690억원을 투입, 목포항에 5만급 1선석 규모의 전용부두를 추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입국 심사 간소화, 크루즈선 승무원에 대한 외국인선원의 고용범위 완화 등 국제 크루즈선사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여수박람회 고급호텔 착공

### 대명레저, 699억 들여 2012년 완공

박람회 기간 국내외 정상급 귀빈이 묵을 고급호텔 건립 공사가 첫 삽을 뜬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5일 (주)대명레저산업의 여수박람회장 내 귀빈용 호텔 (사진)건설공사가 16일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호텔은 지상 25층(연면적 3만 9727.95㎡) 규모로 699억원을 투입, 5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를 비롯해 멀티레스토랑과 스카

이라운지 등을 갖추게 된다. 준공은 2012년 2월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금융위기 등으로 민자유치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에도 액스포트·아쿠아리움에 이어 호텔까지 착공함으로써 박람회 종합기본계획대로 3대 민자사업이 성공리에 모두 마무리됐다”면서 “고급 숙박 인프라가 갖춰져 여수는 물론 남해안권의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진도 관매도 명품 마을로

진도 관매도가 명품마을로 조성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5일 진도 관매도에 대해 ‘국립공원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구역 내 놓여진 마을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10억원을 지원해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등 소득 증대하는 박람회장 시설들도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빛의 만평

- 김중두

나나 잘하세요

### 1면 ‘소신 지사’서 계속

4대강 치수계획 예산이 한강 127%, 낙동강 80%, 금강 62% 집행된 데 비해 영산강은 49% 밖에 집행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영산강이 농업용수로 관리됐기 때문임을 확인한 뒤 “이런 바엔 영산강 독을 뜨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했다.

준설과 보 건설의 필요성도 재차 역설했다. 박 지사는 “4대강 사업의 한 축인 영산강 사업 역시 준설과 보 건설이 핵심인 토목사업으로, 실제 필요한 환경·생명보전에 대한 계획은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떤 근거로 지역민이 동의하고 바라는 지역 현안이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강 유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는 것은 물을 담는 강의 그릇을 키워 홍수

에 대비하고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영산강 물이 부족하다며 대규모 굴착과 댐을 지어 물을 가두어 채우는 것은 또다른 피해를 부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가동보를 설치해 수량과 수위를 수시 조절하고 부족한 수량 확보와 함께 홍수조절 효과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류부 건설화 하천유지 용수가 없어 물고기와 폐사, 수생식물이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학적 예산이 소요되고 생태계 파괴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마지막으로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 재정 능력에 따라 수질개선 사업비에 대한 국고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하니움센터, 화순 발전 ‘효자’

#### 체육행사 잇단 유치... 일자리 창출 등 64억 효과

화순군의 랜드마크인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가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효자가 됐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하니움센터는 개관 10개월만에 전국대학배구대회·국제배드민턴대회·전국여자머니배구대회 등 국내외 대형 스포츠행사를 14건이나 유치했다. 참여인원이 1만5950명이고 가족 등 동반자를 합하면 6만3550명이나 다녀갔다. 이들이 화순에서 쓰고 간 비용은 37억원, 고용 창출 등 경제효과 규모는 64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종

체육행사·테마파크 등 지역 관광사업이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국 13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관광 사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이 분야의 사업으로 일자리 6만7340개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1만7560개, 강원 1만4700개에 이어 전남이 1만3220개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 6900개, 전북 5700개, 충북 3860개, 충남

3400개 순이었다.

지자체 가운데 72.0%가 지역관광 사업이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고, 67.4%는 예년보다 관광객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지역관광 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주로 관광주 종사자(32.6%), 기념품점·식당 등 판매업(15.8%), 휴양·유원지 시설 종사자(12.6%) 등이었다.

지역관광 사업이 성공한 요인은 로는 관광주 홍보 강화(32.9%)와 축제·행사 등 이벤트 확대(30.3%)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지역관광 사업 추진의 애로점으로 는 민간투자 유치 난관(40.9%), 관광 인프라 구축예산 부족(31.1%), 지역 내 관광자원 부족(11.4%) 등을 들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푸르회원증

No J01500745  
광주CC  
박부수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공고함.

### 광주CC

No J01500025  
광주CC  
이예연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공고함.

### 분할임대 및 주권대출공고

주식회사 삼호(이하 ‘삼호’)의 주식회사 다이나믹(이하 ‘다이나믹’)은 2010년 07월 16일 제1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임대” 및 “대출”의 권한을 삼호에게 50%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분할임대 및 주권대출’에 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호는 다이나믹에 대하여 임대 및 대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권한을 이용하여 다이나믹은 임대 및 대출 권한을 삼호에게 부여할 수 있다.

1. 임대(건물)대상: 광주광역시 서구-0014호  
2. 임대(건물)기간: 2010년 08월 17일  
3. 임대(건물)의 약정내용 (1) 기간: 2010년 07월 16일 ~ 2010년 08월 16일 (2) 보증금: 5000만 원 (3) 임대료: 500만 원

4. 임대(건물) 상 호: 주식회사 삼호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동남동 988-1번지  
대표이사: 유근우  
전화: 062-945-5001  
팩스: 062-945-5001

4. 임대(건물) 상 호: 주식회사 삼호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동남동 974-1번지  
대표이사: 유근우  
전화: 062-945-5001  
팩스: 062-945-5001

2010년 07월 16일

### 최고 상권 건물 매매

#### 대단위 APT 단지 인접 동림지구 최신식 건물

-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 대지 632.9㎡, 건물 2,289.09㎡
- 가격 상담후결정

월산동 외곽도로변  
지상 3층 건물매매  
• 대지 374.9㎡  
• 건물 299㎡

문의 전화 011) 607-5629

### 추억과 자연으로 가는 비상구 백두산악

# 텐트·바캉스용품

전구매고객께 사은품 증정!

## 90% ~ 30% 의류 및용품

### 오토캠핑장비 SALE

# 최고의 상품 전국 최저가!

## 월드컵경기장 정문 맞은편

### 백두산악 상설매장 062) 376-2585

임주세육권 월드컵 경기장 상무점 백두산악 상설매장

### 광주CC

No J01500025  
광주CC  
이예연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공고함.